

아하발 예슈아

이번 주 저희 공동체 예배는 영광 가운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은 통행이 차단되었고, 음향 시설은 시작 직전까지 작동이 안 됐습니다. 저희는 임원들을 막 교체한 상태였고, 목회자인 에디는 부재중이었습니다.

경배 시간은 달콤한 분위기로 시작됐습니다. 30 분 후, 저는 간증할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단 Idan 이 로즈 Rose 를 문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기타를 치며 찬양의 후렴구 (chorus)를 불렀는데, 환자, 간호사, 직원들과 문병객들이 함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아랍인 모두 구원 받지 못한 이스라엘 국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기적적 치유를 체험했습니다.

다음엔 크리스티나 Christina 가 나눴는데, 엘라브 Elav 청소년 컨퍼런스에서 치유 사역을 하고 나니 노상에서 치유 기도를 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거리에서 세 명의 젊은 유대교인 무리를 만났습니다. 한 친구는 얼굴에 문제가 있었고, 다른 친구는 다리가 아파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예슈아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모두 나았습니다.

이스라엘군 특공 정예부대 출신인 사무엘은 거리에서 군인 무리를 만나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하르 Sahar 는 대학교 친구들과 신앙을 나눴습니다.

프레디 Freddy 는 즉흥적으로 찬양 후렴구를 만들어 불렀고, 성도들이 따라 했습니다. 다른 간증들이 이어졌습니다. 꿈과 예언과 기도, 예언적 그림, 금방 알리야 온 신혼 부부, 그리고 많은 복음 전도의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약 스무 명의 젊은 유대인들이 성령의 여러 은사들을 나눴습니다.

아직 예슈아를 믿지 않는 유대교 출신의 한 청년이 최근에 저희 공동체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 대학에서 성경 전공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가 앞으로 나와 “자그마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번 주 헤스켈 Heskell 과 오델랴 Odelia 의 결혼식에 왔었습니다. 자신이 종교적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그러한 경험은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헤스켈과 오델랴가 서로 절할 때, 두 천사가 혼인 차일 (후파 Chupah) 을 날개로 덮고 있는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말을 하며 그는 정말 떨고 있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일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모인지 두 시간이 되었고, 저희들은 광고와 헌금 등 일반적 순서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아침, 주께 저는 어떤 말씀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여쭙습니다. 짧게 이 말씀만 들렸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저는 모두 요한복음 3 장을 펴도록 하고,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짧지만 강력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종반에, 저는 성도들에게 거듭나야 할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맨 뒷줄에 앉아있던 이 유대교 청년이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는 영광스럽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에게 안수할 때, 많은 예언의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귀한 성도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 주십시오.

공의와 사회 정의

성경의 중심 주제 중 하나는 공의입니다. 공의의 일면으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는 예슈아의 대속적 보혈로 죄책을 씻는 것이 있습니다.

공의에 있어 이 두 개의 “반쪽”이 최초의 “의인”이었던 아벨에게서 나타납니다. 그가 의로웠던 것은, 하나님 앞에 가져온 피의 제물 때문입니다.

히 11:4 –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또한 그가 한 선행 탕도 있었습니다.

요일 3:7, 12 –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는 공의의 양면을 다 봐야 합니다. 회개와 행의 (行義)가 없이 피의 대속만 믿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증재적 은혜를 제쳐두고 선행만 하려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공의에는 또 세 번째 측면도 있습니다. 바로 사회정의입니다. 사회정의는 성경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현대 설교가들은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정의는 우선적으로 법정의 판사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회정의의 근본적 규칙은 간단합니다. 불법자들을 붙잡고 무죄인 자들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신 25:1 –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정의에 대한 성경의 원칙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죄인을 벌하고 무죄인을 풀어줌), 불의의 성경적 원칙도 간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죄 없는 이들을 벌 주고, 불법한 자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잠 17:15 –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윤리적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근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과 시적 소질 탓만이 아니라, 정부 운영에 있어서의 공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하 8:15 –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새

양쪽 어디에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자들에 대해 너무 “가벼운” 처벌을 할 수도 있고, 잘못도 없는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는, 5명의 주요 정부 지도자가 범죄 혐의를 안고 있습니다. 올메르트 전 총리가 기소된 상태고, 리버만 현 외무 장관은 수사를 받고 있으며, 카짜브 전 대통령은 성폭행 혐의가 있고 베니즈리 Benizri 와 히르쉬조른 Hirshzorn 의원들은 이번 주에 수감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연방 검찰이 이 지도자들을 공격할 정치적 목적으로 혐의를 꾸며내 “마녀 사냥”한다는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비리가 드디어 정부에서 축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됐건 확실한 건, 비리로 걸리리라는 새로운 “두려움”이 이스라엘 정계에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